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심의평

코로나 팬더믹 이후 예술활동이 다시금 활발해지는 시기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볼 수 있는 심사였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의 자립은 미래의 문화예술의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는지, 시대를 앞서가는지,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의 갈증을 풀 수 있는 자립준비금으로 부족할 수 있으나 전문예술가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이번 지원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합니다.

지원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영화장르와 연예, 융복합, 기획의 파트에서 독특하고 예리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보여줌으로서 우리 청년예술인들의 미래가 밝고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원분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구성한 청년예술인들의 기획력과 구체적인 계획은 네 명의 심사위원들이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립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사업의 심사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간절함을 사업에 반영하여 자기 계발과 예술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한 예술가들에게 자립준비금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찬 심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예술가 본인의 언어와 비전으로 자립에 대한 기술을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성을 파악하고 개별 예술가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기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가늠할 수 있었고, 청년예술가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는 즐거운 심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의 확대는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예술적 절망의 순간에서 진정 도움 되는 자립준비금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하며 선정된 예술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은 예술가들도 실력의 차이가 아닌 구체성이 차이가 약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고 용문을 오르는 잉어처럼 예술활동을 꾸준히 지속하여 빛나는 별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 5. 18.

심의위원 류상록, 강보라, 박동기, 정민아